

# “출범초 열정 식고 있다”

## 조계종 개혁 3년 재야단체 여론

개혁 3주년을 맞은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이 출범 초기의 뜨거운 열정처럼 순탄치만은 않다. 종정 월하스님의 사표 제출부터 '선봉사 직영사업'의 존폐 문제, 불교방송 공공화 관련 사건, 전국신도조직의 3년 공백기에 이룬 중앙신도회 결성 등 불거져 나온 사안들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이다.

94년 개혁당시 주체세력인 단체들마저 개혁의 새 원칙을 세우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

했다. 불교관련 법규를 개정해 교권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사찰수령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 '개달음의 사회화' 사업 등을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제고에 열의를 담담했다.

이처럼 개혁의 대원칙을 명분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은 적지 않은 부분 중도들의 공감대를 도출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종단 자주화의 실현의지가 퇴색했다는 우려와 중무집행의 방향이

기원법회를 알기로 한 선언을 스스로 저버리고 대규모 방생법회와 기원법회를 추진했고, 종현으로 금지된 거리탈탈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이 행사의 방향을 보완하고 선회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분으로든 개혁정신과 다른 행태였다면 사전에 공의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인원동원 요구에 중도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 “이벤트행사 중도들 공감대 못얻었다” 개달음 사회화·교권 강화등엔 긍정적

의장 청하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전국승가대학연합(의장 지선) 중앙승가대학생회(회장 무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반) 등 교계 8개단체가 3월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불사 이후 들어선 월주 총무원장 체제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단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떠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개혁종단의 출범 2년5개월여 동안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 분립체제를 이뤄낸 성과를 거두었다. 중무구조를 개선해 문화부 사회부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정소년의 해' '전법의 해' 등 종책차원의 포교전략을 대내외에 드러내기도

'원장 내세우기식'의 일과성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또 집행부의지와는 무관하게 종단 분위기가 단체별 직능별로 '이익집단'화(化) 되고 있는 추세도 가세했다는 진단이다. 불교개혁의 신선함과는 동떨어진 현상으로 자신과 우려의 소리가 높다. 개혁이전의 활동했던 건전한 비판세력들이 침묵을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현 집행부의 불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종차대한 교육제도개선을 마련하는데 종단발전을 위한다는 내로라는 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한 개혁당시 선포했던 종단차원의 방생법회금지과 징부요인 초정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조계종 125회 임시총회(결산총회)가 의원들의 물침으로 4차례 유회를 거듭한 끝에 자동폐회됐다.

# “自省論 대두”

## 조계종 125회 총회 자동폐회 되던 날

조계종 제125회 임시총회는 20건의 안건 가운데 1건만을 다뤄 총회의 직무유기라는 질타와 '자성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성원미달로 유회를 거듭하면서 3월 25~29일까지 회기 5일동안 잠작 회의시간은 불과 10시간에 불과한 결산총회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회됐다.

3월 29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 속개예정인 총회가 산회될 위기에 처하자 재적의원 80명 가운데 40여명만이 지리한 회의장 여기저기서 30여명의 '동돌린 총회의원'들에 대한 심경이 '독백' 형식으로 터져나왔다.

총회의장 설정스님은 "총회의원은 종도의 대표이지 사찰이 행정부서의 대표가 아닙니다"며 "안건에 이견이 있거나 나한테 오해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스님은 또 총회의원들의 불참유형을 3가지로 꼬집었다. "첫째 일이 있어 안나온다. 둘째 관심부족이다. 셋째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이든 경계를 벌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우스님(서울 구룡사 주지)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아

니고 총회의원의 책임"이라며 "정정스님의 사퇴, 또한 총회의원들의 총회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장스님이 참석치 않았고, 재정결산검사가 지연된 것 등이 이번 총회가 산회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님은 "불합한 총회의원들의 출석을 확인해 본사에 알리고 차기 총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총회를 참관했던 한 스님은 "총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이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총회의원들은 모두 부처님께 3천배를 해야 한다"며 회의실을 빠져 나갔다.

성원미달·시간끌기 '일쑤' 5일동안 10시간 회의 상정안건 20건중 1건 처리

설정스님은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로 인해 총회가 끌려가서는 안된다"며 "사안별로 분석해서 어떠한 형태든 경고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총회에정시간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낮은 목소리로 "의도적으로 총회를 해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총회는 종단에 이익도 보탬도 안될 뿐 아니라 이런 모습 때문에 바로 총회무용론 소리로 나옵니다"며 "적당한 시기를 택해 임시총회를 다시 열겠다"며 폐회를 선언했다.

김중근 기자

# 수업이이드

불교방송 공공화령사건이 발생 2개월을 넘겨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90년 불자들의 성금으로 전파를 띄운 불교방송이 개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조해형사장(96년 3월 11일 취임)에게 인턴투를 요청, 사건전말과 대책을 들었다.

(편집자주)



## 공공 횡령 진통격은 佛放 조해형 前사장

# “재정운영 고질부패 청산기회로 삼아야”

-지금의 심경은 어떠신지요.  
▲심려를 꺼져서 죄송합니다. 방송국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처음 사건 발생당시 왜 김선도씨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주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증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하던중 도망을 갔다고 송상무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사건발생 후달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해결대안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사회에서도 사건과정을 보고했고, 손실금 보존방안 등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소송도 걸 계획입니다. 또 회사수익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얼마라고 추정하십니까. 검찰 조사는 44억이 횡령됐는데...  
▲그건 모릅니다. 검찰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단수습대책위원회의 최종조사결과가 가장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대략 18억원정도라고 봅니다. 여기에 총회에서 추가로 밝힌 8억원이 첨가된 26억원이 총 손실액일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과연 경리직원 몇명이 마음대로 유용 횡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다른 관련자는 없습니까.  
▲솔직히 김선도 김현안 박지현씨 이외에 또 다른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현안씨가 검찰에서 자신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출을 집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찰에 구속된 사람이 자신의 변호를 위해 무슨말이든 못하겠습니까. 주범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으로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검찰에서 확인하니 횡령사건

으로 들어온 사람은 모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조의 자료에 의하면 사장취임 이후 나라기획의 불교방송 수주율이 평화방송보다 월등히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나는 나라기획 말고도 여러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어요. 모두 직접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기획의 불교방송에 대한 광고배분비율을 체크할 수도 없는 위치이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해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4월 이사회서 96년 결산보고를 합니다. 96년까지 결산금액이 횡령액을 제외하고 2천5백만원이고 횡령액까지 합하면 95년과 비슷한 28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산은 방송국 개국때부터 96년까지 총 94억원이 넘게 있어 왔습니다. 매년 이사회 결산보고에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26억원에 이르는 돈이 결산금액으로 밝혀졌었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고도 내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산과정에서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같은 엄청난 손실금액은 방송국운영이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로 만연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건해결의 최대 관건인 김선도씨를 잡아야 계획을 없으신지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잡기위해 경찰청 검찰청 외부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상당한 진척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반드시 잡힐 것이고,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사발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단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현재 떠돌고 있는 것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이은자 기자

# 목어

## 3년전 '조계종의 봄'

3년전 이맘때, 조계종은 구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봄의 열정과 외침이 가라앉으면서 '개혁'이 시작됐다.

불교가 '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였기에 시선을 끌었다.

이제 3월을 맞아 평가의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때마침 총무원은 속히 풀어야 할 목적인 과제를 여러

는 능히 화합하며 남의 착한 일은 들어올리며 잘못은 숨기며,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선심을 일으키며...'(우바세계경)

부처님께서 교단의 불화를 열려하여 일러주시는 말씀이다.

목어의 루이지 코저가 쓴 '갈등의 사회적 기능'에 이런 귀결이 있다. "윙통성 있는 사회는 갈등으로 부터 득을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변화된 상황아래 존속되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비판의 소리를 귀담아

어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 불자들은 행여 '구슬'이 발동하여 '개혁'이 무색해질까 가슴 졸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에 불화와 반목이 다시 견지동 45번지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부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다.

"늘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교단의 분열을 화합시키면 반드시 해탈문을 여는 것이 되리라."(普羅經)

"교단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들어 불화와 갈등의 요인을 수정 해결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힘겨운 암투지만 남의 말을 비방까지도 외연히 들어 '악'으로 삼을 수 있는 큰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3주년 담화문에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종단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부대중은 '개혁불사'를 복돋우며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자. 그래야만 불교는 사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中央僧伽大學校

# 김포학사 신축불사 후원 대법회

귀의상보호하고, 금번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해 12월 정규대학으로의 승격을 함께 축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김포학사 신축불사를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힘을 모으고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사부대중을 모시고 뜻깊은 법회의 장을 마련하오니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발전위원장 겸 이사장 **송 월 주**

중앙승가대학교 총 장 **방 지 하**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신 무 상**

■ 일 시 : 불기 2541(1997) 4월 14일(월) 18:00

■ 장 소 : 힐튼호텔 1층 컨벤션 센터

■ 내 용 : 1부. 법회  
2부. 축하공연 및 만찬(저녁공양)

■ 주 최 : 중앙승가대학교 발전위원회

■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 협 찬 : 불교방송, 불교 CATV, 불교신문, 대한불교진흥원

☎ 929-9831, 926-4377, 925-5507~9, 923-1794